

존 파이퍼의 시편 42편 강해: 영적 침체 벗어나기

성경말씀: 시42:1-11

보름간의 미국 여행(1월 30-2월 15), 모든 것이 불안해서 짜증과 걱정, 지난 주 수요일 저녁 도착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밤 1시경, 존 파이퍼의 ‘spiritual depression’, 시편 42편 강해

지난해 같은 시편으로 취약함의 은혜를 설교, 내가 설교하지 않고 들으니 참으로 큰 은혜, 눈물 그 다음날 오전 3시 기상, 크리스 라이스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지난 주 금요일 설교를 못하고 겨우 회복해서 주일 오전 오후에 설교, 다시 평상으로 돌아옴 인생의 고난을 당할수록 인간이 커지는 것을 본다. 명예가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된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 갈 것인가?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기까지 10년 이상 죽을 고생을 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그를 크게 하시기 위해 죽을 직전까지 내몰리는 어려움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한 시,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선하다 하나님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

〈영미 대통령 수상은 조실부모한 사람이 많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대개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근육’을 키워 자존감을 지켰다. 부모를 잃은 이 세상의 모든 고아들이 건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돈이 없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다. 23살에 동업자와 의기투합해 장사를 시작했지만 장사가 잘 안 돼서 큰 빚만 졌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빚을 떼먹을 수도 있었지만 조금씩 갚아나갔고 14년 뒤에야 빚을 청산했다. 24살 되던 해 앤 애틀러지라는 여성과 교제를 했는데 그녀는 링컨이 평생 사랑한 단 하나의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했다. 링컨은 슬픔을 못 이겨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그 후 평생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역사 인물을 살펴보면 그들의 25%가 10세 이전에 부모 중 한 사람을 잃었고, 15세 이전부터 편부모 슬하에 자란 비율이 24.5%, 20세 이전부터는 45%라고 한다. 역대 영국 수상과 미국 대통령들의 경우 일반인보다 높은 비율로 어린 시절에 부모 중 한 쪽을 잃었다(인용: 완웨이강 저, ‘이공계의 뇌로산다’). 〈존 파이퍼의 시편 42편 강해, 왜 낙망하느냐, 영적 침체 벗기〉

존 파이퍼

내가 좋아하는 현시대 설교자 중 하나(1946년생), 1980년 미국 미네소타주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 2013년 은퇴, 2006년 전립선암 수술 치료

Desiring God, spreading a passion for the supremacy of God in all things for the joy of all people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 모든 것에 최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퍼뜨리는 것

12월 말, 3월초 초교과 구국 집회, 모임 대표가 연락해서 미국 강사들을 초청해 달라고 함

맥아더, 파이퍼, 몰러, 제프레스 등 초청 편지, 급작스러운 초청에 하나같이 불응

파이퍼도, 그런데 5월 27-30일, 방한 햇불 선교 센터와 수원중앙침례교회

파이퍼의 설교에는 감성(affection)이 풍부하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풍성히 들어 있다.

목소리 또한 명료하고 그래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시편

1차적으로 교리를 위한 책이 아니다. 교리가 있지만. 시다. 인간의 희로애락이 풍성히 들어 있다.

즉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준다.

고난당해 도저히 살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때 42편을 읽어보라. 1-3, 5-6, 9-11

시편 자체가 기도이다.

6판을 낼 때에는 신구약 전체를 성우를 써서 낭독해서 낼 것이다.

시편 개요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마스길(대상25), 공적 예배에서 낭송하였다.

마스길: 교훈, 여기서는 고통에 대한 교훈

시편 기자의 특징: 솔직히 모든 것을 고백함

1. 외적 상황: 원수들(3), 10,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버렸구나. 네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2. 내적 상황: 낙망하고 불안해 함(5, 11), 울음이 나옴(3)

이 경험이 있는가?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진다.

7절: 익사 상태

3. 소망을 얻기 위해 몸부림친다(5).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소망을 갖고자 한다(11).

자기는 못하면서 자기 혼에게 하라고 한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1980년대 초반, 처음 부임했을 때, 막중한 책무, 42편을 낭송했다.

“왜 낙망하느냐? 너는 목사가 아니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시편은 해피엔딩인가? 아니다.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인생이다.

고통과 고난은 지속된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편을 두셨을까?

고통과 낙심을 다루는 6가지 방법: 어쩌면 인생에 대한 대답

1. 먼저 묻는다(9).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잊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8절).

그런데 그는 그렇다고 말한다. 왜 그런가? 그는 그렇게 느낀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들을 다 치워주십시오. 휴가 가셨습니까?”

1985, 욥 설교 6:26, 절망 중에 빠진 성도들도 바람 같은 말도 한다. “죽어야겠다!”

낙망한 자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 바람 같은 말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완전한 즉각적인 답이 없다. 이것이 인생

2.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확증(8), 내 하나님(11)

7절: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주님의 것, 이 역경이 모두 주님의 것이다.

낙망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 사도 바울의 사역(고후1:8-9), 여기에는 면제가 없다.

어떤 일이 닥쳐도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배의 밸러스트: 선박에서 적당한 복원성을 유지하고 흘수(吃水)와 트림(trim:배의 앞뒤 경사)을 조절하기 위해 배의 하부(下部)에 신는 중량물.

3. 밤에 노래한다. 기도한다. 언제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가? 가장 힘들 때

이때가 인간을 크게 만든다. 시55:1-6,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

4. 자기에게 설교한다(5, 11). 대단히 중요하다. 왜 내가 낙망하는가? 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말해야 한다. 나의 경우 나는 설교를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내게 말하는 것 롬8:31-39, 이것이 다이너마이트다.

5. 기억하였다(4). 공예배의 중요함, 고난당할 때의 가장 큰 위로

개인 예배, 가정 예배가 주지 못하는 경험, 이것을 위해 애를 써야 된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과거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공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이것이 고난의 때의 위로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라. 공예배 대단히 중요하다.

6. 하나님의 갈망(1-2), Desiring God 사역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 위로와 격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

시130편